

<남자가>에 나타난 '기남자'의 일생 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

정인숙*

1. 머리말
2. 이본 현황과 <남자가>의 자료적 성격
3. <남자가>에 나타난 일생 서술의 특징
4. 작품의 향유와 '기남자' 모티프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남자가>는 '남자'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로 서술한 국문가사로 남성의 이상적 삶의 지향이 제시된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일생 서술이 자전적으로 술화되는 여타의 가사와 다른 점에 주목하고 그 서술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술의 특징이 작품의 향유와 관련될 가능성과, 작품에 제시된 '기남자(奇男子)'의 모티프에 주목할 때 개인의 일생 차원을 넘어 가문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 보았다.

우선 일생 서술의 특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남자가>가 단일 화자의 목소리로 일관되지 않고 서술자인 '나'와 중심인물인 '남자'의 목소리가 착종된다는 점이다. 즉 서술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남자'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를 투입시켜 '남자'와의 거리를 없애고 동일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남자가>가 그저 남성의 이상적인 삶이라는 전형화 된 틀에 맞춰 형성된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녹아 있는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의 일생 서술은 주로 장면으로 포착되어 묘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히 시각, 미각, 후각 등을 자극하는 감각적 표현이 극대화되면서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 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서술의 특징은 <남자가>가 현실 경험이 녹아든 생생한 현장감과 감각적인 볼거리로 가득한 흥미로운 작품으로 읽게 한다. 이런 점은 독자층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로서 특히 여성 독자층의 향유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화려하고 호사스런 각종 물품, 의복, 음식 등이 나열된 장면에서 감각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남성들이 서울에서 즐겼던 다양한 풍류 현장을 생생하게 엿볼 수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남자가>에서 ‘남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닌 ‘기남자’로서 비범한 출생 이후 봉조하 휴퇴까지 평생 복록을 누린 ‘복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남자’라는 존재를 통해 부와 명예가 자손 대대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무궁하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작품의 이면에서 포착된다고 할 때, 이 작품은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가문이라는 더 큰 관계망 속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평생 복을 누린 기남자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우리 가문에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 가문의 번창도 소망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핵심어 : <남자가>, 기남자, 일생 서술, 목소리 착중, 장면화, 서울, 세시 풍속, 도시유흥

1. 머리말

몇 해 전에 <만언사>라는 유배가사를 ‘남성의 자전적 술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인층 신분의 작자 안조원이 자신의 삶에 주목하고 자신의 정서적 소회를 풀어낸 점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¹⁾ 남성 작가가 남성화자의 목소리로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글을 쓴 예가 가사문학 전반에서 쉽게

1) 정인숙, 「<만언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008.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연사>는 특별한 작품임에 분명했다. 그 후 남성이 자신의 생애를 서술하는 작품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여러 작품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고 이들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한 바도 있다.²⁾

본고에서 살펴볼 <男子歌>는 앞서 <만연사>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면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작품이다. 당시에는 <남자가>가 남성의 이상적인 일생을 표현하는 하나의 전형에 기반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작자 자신의 자전적 체험을 술회하는 <만연사>와 같은 작품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신빙성이 확보된 ‘나’의 경험을 일관되게 들려주기보다는 ‘남자’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한 측면을 더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남자가>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³⁾ 우선 이 작품은 남자의 이상적인 삶의 지향이 작품 전반에 깔려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유리된 삶만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도 작품에 소개된 각종 놀이문화나 화려한 관료생활이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서술”⁴⁾되어 있다거나 “화자가 체험한”⁵⁾ 서울의 유흥문화가 서술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자의 경험이 서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단일 화자의 일관된 목소리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즉 <남자가>에는 화자의 목소리가 착종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인 ‘나’와 중심인물인 ‘남자’를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작자의 신분 계층을 밝히거나 생성 맥락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⁶⁾ 시적 화자나 서술시점의 측

2)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3) 금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에서 “한국에서의 자기서사의 전개와 독법”이라는 기획주제로 개최한 제20회 HK워크숍에서 <남자가>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이 글은 당시 발표했던 원고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4) 박연호, 「<남자가>에 제시된 조선 후기 중간계층의 삶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학회, 2008, 278면.

5)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234면.

6) <남자가>의 존재를 학계에 처음 알린 구수영 교수의 연구(구수영, 「男子歌攷」, 『논문

면은 자세히 검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서술자인 ‘나’와 중심인물인 ‘남자’의 거리를 고려하면서 목소리의 착종 현상과 서술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남자가>에 나타난 일생 서술의 특징은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 주고 독자층의 흥미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 작품을 이상적 인물의 전형화 된 일생을 무미건조하게 그려낸 것이 아닌, 생생한 현장감과 감각적인 볼거리로 가득한 흥미로운 작품으로 읽게 한다. 특히 여성 독자층의 향유 가능성을 제기하게 하는데, 화려하고 호사스런 각종 물품, 의복, 음식 등이 나열된 장면에서 감각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남성들이 서울에서 즐겼던 다양한 풍류 현장을 생생하게 엿볼 수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가>는 ‘남자’라는 한 개인의 일생 서술 차원을 넘어 그가 소속된 가문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작품에 제시된 ‘奇男子’ 모티프에 주목할 때 <남자가>는 단지 이상적인 인물의 삶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문의 무궁한 영달을 바라는 염원까지 담은 작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남자가>의 일생 서술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작품의 향유와 ‘기남자’ 모티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의 면모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본 현황과 <남자가>의 자료적 성격

현재 학계에 소개된 <남자가>의 이본은 3종으로 다음과 같다. 이본에 따라 길이의 차이와 내용의 변화가 다소 발견된다.

집』 제8권 제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이래 박연호 교수와 이상원 교수가 각각 <남자가>, <남아가>라는 이본을 대상으로 작품에 반영된 중간계층의 삶이나 작품의 문화사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박연호, 앞의 논문 ; 이상원, 위의 논문)

① 구수영본 <남자가> : 구수영 교수가 학계에 처음 보고하여 <남자가>의 존재를 알린 자료이다.⁷⁾ 자료의 서지사항은 밝혀져 있지 않고 논문의 끝에 작품 원문이 활자화되어 수록되어 있다. 분량은 4음보 1행 기준으로 162행이다.⁸⁾

② 장서각본 <남즈가> : 박연호 교수가 소개한 자료로 장서각에 소장된 『남즈가』라는 표제의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다.⁹⁾ 군데군데 뜯겨져 나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정확한 분량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대략 175~180행 정도로 추정된다.¹⁰⁾ 여기에는 <남즈가> 외에도 <만연사> 연작(<만연사>, <쥬인기유서>, <스빅부>, <스부모>, <스우곡>)과 <쥬풍감별곡>, <쳐사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간기 기록 이후에 필체가 전혀 다른 가집으로 『청구영언』이 합철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③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 : 이상원 교수가 소개한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古歌謠記抄』라는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다.¹¹⁾ 분량은 209행이다. 여기에는 <남아가> 외에도 <농부가>, <옥설가>, <봉선화가>, <호남가>, <호서별곡> 등의 가사와 고소설 2편, 단형서사물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세 이본을 비교해 보면 먼저 ①과 ②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다만 ②에 ‘밤화류’¹²⁾ 장면이 들어가 있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에 비해 ③은 ①,

7) 구수영, 앞의 논문 참조.

8) 구수영 교수는 164구로 보았는데 이는 내용에 따라 행을 나누면서 2음보를 1행으로 처리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이다.

9) 박연호, 앞의 논문 참조.

10) 박연호 교수는 180.5행으로 이상원 교수는 175행으로 보았다.

11) 이상원, 앞의 논문 참조.

12) ②에는 사월초파일 관등놀이 대목과 단오 육란회 구경 대목 사이에 밤화류를 즐기는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친신희던 보두군관 귀예디여 호논말이/ 엇그제 가든창녀 삼남들의 명기 라테/ 두어친구 업질너 밤화류가 엇더호고/ 선전뒤 김흔골의 평디문니 그집일네/ 다홍부치 치면호고 곤기침의 드러가니/ 늦춧디 이불상의 규벽하니 네로구나/ 옥식누비 삼회장의 슈화 방쥬 남치마로/ 손님보고 거거홀제 위션향취 반갑더고/ 부산디 김희독의 흥엽향취 교염하니 삼동초출 꿰여주니/ 주인년기 얼마런고 단순호치 절묘하디/ 두어말 슈죽후의 삼오이팔 동감

②와 비교하여 내용상 사뭇 다른 점이 발견된다. 계절 순서에 따라 세시풍속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상원 답교놀이와 사월초파일 관등놀이 두 대목은 다른 세시풍속과 분리되어 있다.¹³⁾ 그런가 하면 남자의 출생이 서술된 서두부분이 ①, ②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확장되어 있고, ①과 ②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③에만 탈락되어 있기도 하다.¹⁴⁾ 이를 통해 볼 때 ③은 ①, ②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본이라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세 이본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① 구수영본 → ② 장서각본 → ③ 국립중앙도서관본 순서로 생성되었다고 추정하 바 있다. ①은 ‘밤화류’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간계층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생성기 이본으로, ②는 ‘밤화류’ 장면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중간계층의 손질이 가해진 이본으로, ③은 남자의 이상적 삶을 최대한 화려하게 그려내고자 분량을 확대한 것으로 사대부의 이상적 삶과 중간계층의 욕망이 착중된 이본으로 보고 있다.¹⁵⁾

본고에서는 세 이본 가운데 ①을 대상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①이 세 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기에 <남자가>류의 작품이 처음에 어떤 서술구조로 형성되었는지 또는 어떤 의식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는지 가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은 길이가 가장 길다고는 하나 ①에 비해 상당히 변모된 흔적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설의 기본 배치나 내용 구성에 있어 ①, ②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본 자료로 삼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런가 하면 ②는 우선 필사본의 자료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¹⁶⁾ 그리고 ‘밤화류’ 장면이 추가된 점 외에는 ①과 내용이 흡사하다. 따

이라/ 남모르게 눈썹어 일관단심 티즌후/ 단양영진 도라오니 후일괴약 두어구나”)

13) 선행 연구에서는 “남자의 유락적 삶을 민속놀이와 도시유흥의 둘로 구분하고 민속놀이는 ‘성장과과정의 수확과 생활’ 부분에, 도시유흥은 ‘혼례 및 유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 것”이라 하고 “상원 답교와 초파일 연등놀이가 민속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이상원, 앞의 논문, 224~225면) 그런데 답교놀이나 관등놀이도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유흥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민속적 성격이 강하여 의도적으로 분리 배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4)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단오절 그네뛰기 대목이 탈락되어 있다.

15) 이상원, 앞의 논문, 225면.

16) ②를 소개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①의 자료를 통해 보완한 바 있다.(박

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①을 기본 자료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필요에 따라 ②와 ③을 적절히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3. <남자가>에 나타난 일생 서술의 특징

3.1. 서술자 ‘나’와 중심인물 ‘남자’의 목소리 착종

<남자가>는 ‘남자’의 일생을 출생, 유아기, 유년기, 성년, 과거급제, 관직 역임, 奉朝賀 休退까지 시간적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장안의 벗님니여 이니말삼 드리보소
부모계 성육하고 신명기 복을타서
길월길일 강성하니 기업성이 황황이라
홍종을 울히는듯 호표가 파람하다…
유모보모 정훈후에 슈청별감 피셔스니
동니우산 늪히들고 전주원선 가리와서
김상국기 뵈온후에 박상셔가 다려간다

위는 <남자가>의 서두부분으로 “장안의 벗님니여 이니말삼 드리보소~”로 시작된다. 여기서 서술자는 ‘이내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그다지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는다. 神明계 복을 타서 吉月 吉日 降生한 인물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이후 다소 호들갑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매우 세세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자인 ‘나’와 중심인물인 ‘남자’와의 거리가 느껴진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오늬세 칠팔세의 효경논어 외와스니…
 일과흔글 다익고서 춘마¹⁷⁾타고 동모불너
 도위덕 도련님과 승지덕 아기네와
 훈히맛 두히아려 정동갑이 두세실다

아이는 자라 5~6세, 7~8세가 되어 『효경』, 『논어』 등을 배우는데 이러한 글을 다 읽고 나서 동무들을 불러 竹馬를 타고 놀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된 동무들을 보면 ‘徒尉¹⁸⁾덕 도련님’과 ‘承습¹⁹⁾덕 아기네’ 등이 있고 나이로 보면 한 살 위, 두 살 아래, 正同甲²⁰⁾이 두세 명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도련님’이나 ‘아기네’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함께 어울리고 놀았던 ‘남자’의 시점이 아닌 서술자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가>가 기본적으로 서술자인 ‘나’가 제3자의 시선으로 중심인물인 ‘남자’를 형상화하는 구도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십세가 넘어지니 숙성닌스 다되였다
 풍치는 두목지요 문장은 니적선이
 과공시부 자랑마소 락문편장 여기잇니…
 이러저령 중미와서 규양현부 탐지히니
 압집에는 스쥬가고 뒤집에는 턱일온다
 네편난 문단이요 길복은 능나로세
 조흘시고 은안준마 호스로드 서디품복
 어엿부다 이실낭야 준수하다 저시셔방
 시비쥬중 티도상의 소년남야 호기로드

10세가 넘어가니 ‘熟成人士’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풍채는 杜牧之요 문장은 李謫仙이라 칭송하고 있다. 혼사가 이뤄지고 화려한 犀帶品服에 銀鞍

17) 장서각본 <남자가>에는 ‘뉘마’로 되어 있다.

18) ‘도위’란 조선시대 토관직(土官職) 무관 벼슬의 품계에 붙이던 칭호를 가리킨다.

19) ‘승지’란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3품의 당상관을 가리킨다.

20) ‘정동갑’은 나이가 꼭 같음을 뜻한다.

駿馬를 타고 侍陪의 추종을 받으며 大道 상에 나선 광경은 그야말로 “소년 남아 호기로다”라 찬탄할 정도로 ‘남자’의 호방한 기상(豪氣)을 보여준다. ‘어여쁘다’ ‘준수하다’ 등의 주변 반응 역시 훌륭하게 성장한 ‘남자’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서술자의 시선에서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작품은 이처럼 서술자가 중심인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듯 서술되다가 중간에 서술자인 ‘나’의 목소리가 ‘남자’의 생애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양상이 포착된다. 즉 서술자가 어느 순간 중심인물과 밀착되어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가>가 그저 이상적인 삶의 전형화 된 틀에 맞춰 형성된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녹아 있는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과 같은 대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종일진환 혼은후에 상원답교 귀약하다
청천의 일눈명월 십스교에 빗치로세
조흔술 가져오소 별안주는 너당함세
낙슈교을 발분후에 당낙종을 드리리라
거리거리 노일면서 사람마다 인사로다

위는 정월 대보름인 上元에 踏橋 놀이를 하는 대목이다. 답교 즉 다리밟기는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청계천 주변의 다리에서 행해졌는데 특히 광통교와 수포교를 중심으로 성황을 이루었다.²¹⁾ 이때는 다리 난간 옆에 휘장을 치고 앉아 시문을 짓고 음식을 즐기기도 했는데, 위 인용문을 보면 “조흔술 가져오소 별안주는 너당함세”라고 하여 상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청하고 안주는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삽입시키고 있다. 또 다른 대목을 살펴보자.

21)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정인숙, 앞의 논문, 2008)

이윽고 아희청직 음식왔다 알외는고
 지쥬있다 **자니니상** 가지가지 묘찬이며
 묘리있다 **우리니즈** 그릇마다 산미²²⁾로다

위는 삼월삼진날 花柳 놀이에 연결되는 대목으로 백화원을 찾아가 꽃구경도 하고 시조, 잡가도 즐긴 후 갖가지 맛난 음식을 대하는 장면이다. “지쥬있다 자니니상~묘리있다 우리니즈~”라고 표현하면서 ‘자네 內相²³⁾과 ‘우리 內子’가 갖가지 妙饌과 산해진미를 준비해 온 정황을 그리고 있다.

유상유유 질탕하니 난정의 일소런지
 무궁금회 춤담하니 쇠주의 증점일시
 풍월짓자 의논하고 칠보시을 지어는니
 가학스의 고토런지 밍호연에 엇게로다
 공교호 **네**나귀오 웅건하다 **네**연귀다²⁴⁾
 푸른비점 불근관주 화전지에 가득하니
 취흥을 못이기여 어울너울 푸는소리
 단산에 **치복**이오 구소에 선향일다

갖가지 맛난 음식을 즐긴 후 곧이어 ‘流觴娛遊’를 질탕하게 즐기는데 蘭亭의 逸少²⁵⁾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 풍류가 대단하다. 벋들과 더불어 七步詩를 짓는 대목에서 ‘너’의 글귀는 공교롭고 ‘나’의 聯句는 웅건하다고 하

22) 여기에 ‘산미’는 ‘산해진미(山海珍味)’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장서각본 <남즈가>에는 “사미”로 표기되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여기에 ‘山味’라는 한자를 부기한 바 있다.(박연호, 앞의 논문, 272면) 그런가 하면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에는 “사미”로 표기되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邪味’로 보고 ‘몹시 야릇하고 간사한 맛’으로 풀이하고 있다.(이상원·김진옥·김미령, 『주해 고가요기초』, 보고서, 2009, 100면) 그런데 작품의 문맥상 ‘邪味’보다는 ‘산해진미’의 줄임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3) ‘내상’이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24) 이 행은 장서각본 <남즈가>에 “공교하다 네글귀오 웅건하다 니렴귀라”로 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면 인용문에서 뒤의 ‘네’는 ‘니’로 표기되어야 옳다.

25) ‘일소’는 중국 王羲之의 字이다. 그는 ‘난정’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 한 수를 짓는 아취 있는 놀이를 하며 봄날을 즐겼다고 한다.

면서 ‘나’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봄날
유상오유를 즐기는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전달하는 효과를
거둔다.

춘당당의 알선일다 서울기별 빗비와서
슈삼비를 거울너서 오육인 급히오니
선혜청 분아필과 호조하인 정초지며
글시용훈 사슈로다 평성지조 다하여서
시관편츠 마춘후의 수시훈니 정권하니
정원스령 방부르니 장원급제 니로소니
스화청삼 상아홀의 탐화낭은 동접일다

위는 서울 근교에서 선유놀이를 하며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던 중 春塘臺
에서 謁聖試가 있다는 기별이 오자 급하게 과거시험을 보게 되는 대목이다.
宣惠廳 分兒筆²⁶⁾과 호조 하인의 正草紙²⁷⁾를 받고 글씨 용한 寫手²⁸⁾의 도
움을 받아 평생 재주를 다해서 墨券²⁹⁾하니 드디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된다. 여기서도 “장원급제 니로소니”라고 하여 ‘나’의 목소리를 끌어들이
어 이후 펼쳐지는 화려한 관료생활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킨다. 事變注書를 시
작으로 翰林學士, 奎章閣 待教 및 檢閱, 司憲府 持平, 校理, 修撰, 吏曹參判,
觀察使, 弘藝文館 大提學, 兵吏曹 判書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世子師
傅의 임무도 맡게 된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도 과거급제 이후의 화려한
관직생활은 다분히 이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언급했듯이³⁰⁾ ‘나’가 실제
로 그런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에서는 ‘나’의 목소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가>는 서술자인 ‘나’가 제3자의 시선

26) ‘분아’는 벼슬아치들에게 年例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주던 일로 ‘分下’라고도 한다. 여기서
분아필이란 선혜청에서 試券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내린 붓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7) ‘정초’는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를 말한다.

28) ‘사수’란 科場에서 試券의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을 가리킨다.

29) ‘정권’이란 과거의 답안을 試官에게 내는 일을 말한다.

30) 이상원, 앞의 논문, 237면.

으로 중심인물인 ‘남자’를 형상화하는 구도로 출발하나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가 들어와 서술자와 중심인물 간의 거리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나’의 목소리가 개입되면서 작품은 보다 현장감 있게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에 드러난 ‘나’의 목소리는 <만언사>와 같은 자전적으로 슬회되는 ‘나’의 목소리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거나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면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남자’의 복된 일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 <남자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장면의 포착과 감각적 표현의 극대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목소리가 개입되면서 작품은 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이는 각 대목이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되어 묘사되는 점과도 관련된다. ‘남자’의 일생이 서술되는 가운데 특정 순간이 선택되어 장면화되면서 생생한 현장감이 전달되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동상네에 가즌찬품 날정흔여 시겨시니
 계피당귀 각색떡의 뉴자선뉴 동정굴과
 흥시릭시 빙스과에 호도송жат 세실과라
 인제썸에 양지두와 봉전복 광어로다
 감홍벽향 송결슈와 니화두건 소국쥬라
 아름답다 열구자탕 장할시고 병거지골

위는 東床禮³¹⁾ 장면으로 온갖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는 대목이다. 계피, 당귀, 각색 떡, 유자, 석류, 洞庭橘, 紅柿, 白柿³²⁾, 水砂菓³³⁾ 호두, 송жат, 細

31) ‘동상례’란 혼례가 끝난 뒤에 신부집에서 신랑이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가리킨다.

32) ‘백시’란 꽃감을 가리킨다.

33) ‘빙사과’란 ‘빈사과’라는 말을 한자를 빌려 쓴 것으로, 유밀과의 하나이다.

實果, 애저찜,³⁴⁾ 양지머리, 봉전복, 광어, 甘紅露, 碧香酒, 松節酒, 梨花酒, 杜鵑酒, 小麴酒, 悅口子湯³⁵⁾, 병거지골³⁶⁾ 등은 동상례 장면을 더욱 화려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특히 봉전복, 열구자탕 등 평소에는 보기 힘든 특별한 음식이 등장하여 동상례의 잔치상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이 장면은 온갖 색깔의 떡이며 홍시, 백시 등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의 맛이며 풍미가 연상되어 미각 또는 후각도 자극하는 요소도 다분하다. 이는 다음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욱고 아히청직 음식왔다 알외는고
 지쥬있다 자니니상 가지가지 묘찬이며
 묘리있다 우리니즈 그릇마다 산미로다
 시원하다 착면수면 의쥬강계 쏠이로다
 솟되도다 제육슈육 평양해쥬 돈이런가

위는 삼월삼진날 화류놀이를 마친 다음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다. ‘이욱고’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의 활용은 삼진날에 벌어졌던 이런 저런 일들이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게 전달되는 데 일조한다. 갖가지 묘찬이며 그릇그릇 담겨진 산해진미를 비롯하여 着麵, 水麵, 제육, 수육 등 구체적으로 제시된 먹거리는 장면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특히 착면³⁷⁾과 수면³⁸⁾은 삼진날에 먹는 별미 음식으로 『東國歲時記』에서 확인

34) ‘애저찜’이란 어린 돼지고기 찜을 가리킨다.

35) ‘열구자탕’이란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라는 뜻으로 ‘신선료’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36) ‘병거지골’이란 전골 지지는 그릇을 가리키는 말로, 그 생김새가 마치 옛날 병졸이나 하인들이 쓰던 병거지를 찻혀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애초에는 그릇만을 뜻했으나 나중에는 병거지골에 지진 음식까지도 일컫게 되었다.

37) ‘착면’이란 녹두가루로 만든 국수를 오미자즙에 넣어 먹는 음식을 말한다. 『동국세시기』의 3월 3일 대목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서 오미자 국물에 띄우고 꿀물을 섞고 또 잣을 띄운 것을 花麵이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착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최대립 역해, 『신역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2008, 67면 참조)

38) ‘수면’이란 녹두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붉은 물을 들이고 꿀물을 타서 먹는 것으로 삼월삼진날에 먹는 음식의 하나이다. 『동국세시기』 3월 3일 대목에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붉은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꿀물에 띄운 것을 水麵이라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위의 책, 같은 면 참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착면, 수면에 의주 강계에서 난 꿀을 타서 시원하게 즐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평양 해주산 돼지로 만든 제육 수육을 즐기는 모습도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다. 갖가지 먹거리가 나열된 이 장면은 앞서 살펴본 동상례 장면에서처럼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등도 함께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사월초파일 관등놀이 대목도 흥미롭다.

청명모춘 지난후에 광능팔일³⁹⁾ 오것고나
 피쥬부를 부름후에 빅낭청을 청하여서
 등제규를 차려쥬니 밍글기를 잘흐옵소
 다방골 역관의게 오치지를 물드려서
 신기롭다 금거복과 절묘하다 옥톿기며
 묘할시고 쥬은소무 천연허다 전넙쓴눔
 학에거동 속되도고 봉의형상 허여니고
 어롱어롱 그러니고 굼뜰굼뜰 밍그러서
 무섭고나 호랑이나 이상홀스 사지로드
 의연허다 그리마와 쏘긋고나 올희얄의
 실눅실눅 망석이며 죽금죽금 취승일다
 쥬두의 올라보니 다닥다닥 별빚치오
 쥬노을 느려보니 모닥모닥 불빚치다

계절은 흘러 清明, 暮春이 지난 후 觀燈 八日이 돌아온다. 사월초파일에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등불을 달아놓고 구경하는 관등은 고려에서 성행한 축제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풍속이지만 실제로 관등은 한양의 백성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였다. 위의 인용문에는 관등놀이를 위해 다방골의 역관에게 五彩紙를 물들이게 하고 갖가지 형상의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신기롭다’, ‘절묘하다’, ‘묘하다’, ‘天然하다’, ‘무섭다’, ‘이상하다’,

39) 원문에 ‘광능팔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관등팔일’의 誤記로 보인다.

‘의연하다’, ‘똑같다’ 등의 여러 가지 느낌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특히 ‘어롱어롱’, ‘굼뜰굼뜰’, ‘실녹실녹’, ‘죽금죽금’ 등의 의태어를 통해 화려하고 다채로운 등의 시각적 형상이 실감나게 전달되고 있다. 각양각색의 등이 달려 있는 한양 성내의 풍경은 蠶頭峰에서 바라볼 때 더욱 화려하게 다가 오는데, 잠두에 올라보니 하늘에는 다닥다닥 별빛이 가득하고 종로를 내려다보니 모닥모닥 불빛이 가득하다. 이러한 풍경은 徐居正을 비롯한 여러 문인이 남긴 <漢都十詠> 가운데 ‘鐘街觀燈’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관동 놀이가 서울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였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자.

강상의셔 오는편지 선유호즈 청호엿니
빅사장의 모라가니 청총마를 빗기타고
군주판사 광흥녕은 비꾸며서 디렁호니
상하씨을 흘이져어 비단돛출 놉히들고
농산삼기 지난후의 양화형쥬 느려가니
붉은달이 올라온다 저역내 거든후의
소연호 밭근빚치 빅벽궂치 메엿시니
핀입스귀 마름일다 붉은꽃친 뇨화로다
선즈드러 빗전치고 적벽부를 외오면서
어부스를 화답호니 낙시드러 고기낙고
동파소치 비겨시며 당안흥미 엿더호고

위는 선유놀이 장면으로 선유하자는 편지를 받고 廣興畝⁴⁰⁾이 준비한 배를 타고 용산, 삼개를 지나 양화, 행주로 내려가면서 풍경을 즐기는 대목이다. 여기서 ‘삼개’는 마포와 용산 사이에 있던 ‘삼개 나무’를 가리킨다. 한강에서 특히 마포, 서강, 양화도 부근을 西湖라고 불렀는데 서호는 조선시대 서울 근교의 제일가는 명승지였기에 초기부터 문화사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⁴¹⁾ 서호 일대의 뱃놀이는 매우 유명하여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한 연회가

40) ‘광흥령’은 廣興畝의 종5품 관직을 가리킨다.

여기서 배풀어졌고 <한도십영> 가운데 ‘麻布泛舟’로도 형상화된 바 있다. 저녁 무렵 달이 떠오르자 소연한 밝은 빛이 白璧같이 사방에 퍼지고 한강 서쪽 강변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扇子를 들어 뱃전을 치면서 <赤壁賦>를 외우고 <漁父詞>로 화답하는 모습은 관직에 나가기 전의 한가롭고 고상한 處士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東坡 騷致’⁴²⁾에 비길 정도라고 한 데서는 文識 있는 선비로서의 자부심도 느껴진다.⁴³⁾ 그야말로 한가로움과 여유, 유락과 흥취가 한 데 어우러진 멋스러운 풍경이라 할 만하다. 한강 서쪽 강변에서의 선유놀이는 사월초파일의 관등놀이와 더불어 서울 선비의 풍류를 잘 보여준다. 이는 <남자가>가 단순히 남성의 이상적인 삶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가로움과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서울인의 일상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작품의 향유와 ‘기남자’ 모티프의 의미

구수영본 <남자가>는 서지사항을 알 수 없어 추론하기 어려우나, 장서각본 <남즈가>와 국립중앙도서관본 <남아가>의 경우 문헌에 함께 수록된 작품들이 당시 규방문화권이나 가창문화권에서 유통되던 것임을 고려할 때⁴⁴⁾ 이들 작품 역시 동일한 문화권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품의 소통이나 향유에는 그럴 만한 작품 내·외적 요소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바, 예를 들면 장서각본 <남즈가>와 함께 수록된 <만언사> 연작의 경우 구구절절 엮어낸 유배지의 참담한 경험담과 사친(思親)의 애절한 정서가 여성 독자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으리라 추정된 바 있다.⁴⁵⁾

41) 이혜순, 「천년 승지, 서울」,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상), 논형, 2005, 33면.

42) ‘동파’는 蘇東坡를, ‘소치’는 시문의 우아한 멋을 뜻한다.

43) 이러한 문식 있는 선비로서의 흥취와 자부심은 앞서 본문에서 잠시 언급한 삼월삼짇날 流觴娛遊 대목에서 벗들과 칠보시를 짓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4)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남즈가』에 함께 수록된 <유흥감별곡>이나 <처사가>는 조선 후기 유흥공간에서 인기리에 연창되었던 노래들이고, 『고가요기초』에 <남아가>와 함께 수록된 <옥설가>나 <호남가> 등도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작품이다. (박연호, 앞의 논문, 269면 ; 이상원·김진옥·김미령, 앞의 책, 18~19면 참조)

<남자가>도 작품의 향유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일생 서술의 독특한 특징들이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가>는 전형화 된 틀에 맞춰 형성된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닌 ‘나’의 목소리가 녹아 있는 생동감 있는 작품이고, 특정 순간이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된 생생한 현장감과 감각적인 볼거리로 가득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런 점들이 독자층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추정되는데 특히 여성 독자층의 향유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예를 들면 화려한 물품을 비롯하여 갖가지 음식과 술 등의 먹거리가 특정 장면 속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혼례 복식이나 동상례의 음식, 삼월삼진날의 절기음식 등의 화려한 나열은 여성 독자층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시각, 미각, 후각 등 감각적 표현이 극대화되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 흥미롭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나는 주요 특산물들도 눈길을 끌만한데, 삼월삼진날 화류놀이 이후 음식을 즐기는 장면에 나오는 ‘의주 강계 꿀’이나 ‘평양 해주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작품 서두의 남자의 출생 대목에 나오는 ‘東萊 雨傘’⁴⁶⁾이나 ‘全州 圓扇’⁴⁷⁾ 등도 그 예라 할 수 있다.⁴⁸⁾ 이들은 품질 좋고 화려한 고급물건이기도 하거니와 평상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여겨졌으리라 짐작된다. 유년기 수학 시절 공부방을 묘사한 장면에서 나오는 ‘樺榴冊床’⁴⁹⁾이나 ‘玉書檄’⁵⁰⁾, ‘옥벼루’, ‘자개문갑’, ‘산

45)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정인숙, 앞의 논문, 2008)

46) 조선시대 부산 초량에 草梁倭館이 설치된 후 부산과 동래 지역에는 다양한 일본 물품이 유입되었는데, 李學達가 지은 <草梁倭館詞>라는 시에는 ‘금칠한 상자와 바구니[金漆箱籠]’ ‘붉은 칠한 우산[紅漆傘]’ 등이 언급되어 있다.(김성진,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동양한문학회』 12, 동양한문학회, 1998, 65면 참조) 여기서 ‘동래 우산’은 아마도 왜관을 통해 동래 지역에 유입된 화려한 일본 우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47) 전주는 조선시대 가장 질 좋은 부채를 생산하였던 부채의 고장이었다. 이곳에서 최고의 부채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곧고 단단한 대나무가 많고 질 좋은 한지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주에 설치되었던 전라감영에 扇子廳을 두어 부채를 제작하게 한 것도 단오날에 임금에게 진상할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그만큼 전주 부채는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전주부채문화관’ 안내 자료 참조)

48) “유묘보모 정호후에 슈경별감 피셔스니/ 동너우산 놉히러고 전주원선 가리외서”

49) ‘화류’는 紫檀의 목재로서 붉은 빛을 띠며 결이 곱고 몹시 단단하여 건축·가구·미술품 따위의 고급재료로 많이 쓰였는데, ‘화류책상’은 화류로 만든 책상을 가리킨다.

호필통' 등 역시 호사스런 물품의 예라 할 수 있다.⁵¹⁾

또한 <남자가>에 서술 배치된 서울의 세시풍속이나 도시유흥의 요소도 여성 독자층의 흥미를 끌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冬至 후 臘平⁵²⁾ 연놀이(12월) → 상원 답교놀이(1월) → 삼월삼짇날 화류놀이(3월) → 사월초파일 관등놀이(4월) → 단오 浴蘭會⁵³⁾ 구경(5월) → 사냥 및 단풍놀이 → 船遊 놀이 등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계절로 보면 겨울 → 봄 → 여름 → 가을의 순서로 전개된다. 납평 연놀이만이 혼례 이전의 어릴 적 경험으로 분리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혼례 후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계절의 추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독자들은 작품에 서술된 서울의 세시풍속과 도시유흥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남성들이 서울에서 즐겼던 멋스러운 풍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남자가>의 '남자'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작품의 서두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삶이 예정되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부모계 상육하고 신명기 복을타서
 길월길일 강성하니 기업성이 황황이라
 흥중을 울히는듯 호표가 파람하다
 곤옥갓튼 빅면이며 단스갓튼 쥬슈이라
 연합호두 원비일요 용미봉안 괴의하다
 귀격달상 가져스니 분양복을 불워하라

50) <남자가>에는 '옥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장서각본 <남자가>에 '옥서장'으로 표기된 것을 참고할 때 '옥서장'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옥서장'은 옥으로 만든 '書檯'을 뜻하는데, '서장'은 冊檯으로서 조선시대 서책을 수장하는 가구를 가리킨다.(최상현, 『조선 상류 주택의 내부 공간과 가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08면 참조)

51) "화류취상 옥서당에 문방스우 버렸고나/ 옥벼로 뉴리필의 분당홍당 황빅지와/ 공산오옥 두양매월 쥬홍청화 농벼로다/ 자기문갑 괴이하고 산호필통 빗나도다"

52)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臘祭 또는 臘祭라 하는데, '臘平'이란 그 제사를 지내는 날로 '臘日'이라고도 한다. 음력 12월에 있다.

53) 중국의 『荊楚歲時記』에 의하면 단오 때 난초를 욕조에 띄워 그 우려난 물로 목욕을 했다고 하여 단오절을 浴蘭節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기 나오는 '浴蘭會'란 단오 때 행해진 이런 풍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세에 **기남**즈요 만디에 복인이라
부모경환 층양읍고 친척하레 분분하다

崑玉 같은 白面, 丹沙 같은 朱脣, 燕頤虎頭⁵⁴, 龍眉鳳眼⁵⁵ 등의 표현은 강한 색채감과 더불어 비범한 인상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남자’는 ‘貴格 達相’⁵⁶을 가지고 태어나 ‘汾陽’⁵⁷의 福도 부럽지 않은 인물로서, ‘一世의 奇男子’⁵⁸이자 萬代의 ‘福人’으로 명시되고 있다. 신명께 복을 타서 길한 날에 강생했기에 평생 복을 누리는 삶이 태어날 때 이미 예정된 ‘복인’임에 틀림없다. 부모의 기쁨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賀禮가 분분한 것은 이러한 기남자의 탄생이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안의 경사이자 가문의 경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남자가 만대의 복인으로 누리는 삶은 작품의 후반부에 강조되어 나타난다. 작품 서두에 ‘귀격달상’으로 전제되어 있었기에 작품 후반부에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것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대목에는 복인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봉조하의 휴퇴흐니 괴린이며 난봉이라
팔즈도 무흠흐니 성덕의 낭필이요
오복이 구전흐니 고목의 세신이라
어화 당부싱어세혀여 일싱힉낙 이러흐세

위는 작품의 결사부분으로 화려한 관료생활을 마감하고 奉朝賀로 休退하는 대목이다. ‘봉조하’는 중2품 관리로 사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로, 실무는 보지 않고 儀式이 있는 경우에만 관아에 나가 참여하며 종신토록 녹봉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편안하고 명예로운 노년을 보장받

54) ‘연함호두’란 제비 같은 턱과 범 같은 머리라는 뜻으로 장차 封侯가 될 相을 이르는 말이다.

55) ‘용미봉안’이란 용의 눈썹과 봉황의 눈이라는 뜻으로 貴相을 이르는 말이다.

56) ‘귀격달상’이란 귀하게 될 사람의 골격과 높은 인물이 될 相을 가리킨다.

57) ‘분양’은 중국 당나라 때 인물인 郭子儀의 封號이다. 그는 부귀를 누리고 또한 많은 자손이

모두 현달했기에 복록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로 꼽힌다.

58) ‘기남자’란 제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자를 뜻한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聖代의 良弼⁵⁹⁾이자 喬木의 世臣⁶⁰⁾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임금을 충실히 보필한 신하⁶¹⁾로서의 자부심과 累代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낸 집안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장황하게 나열된 화려한 관료생활이 그저 한 개인의 영달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관계망 속에서 해석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비범한 기운을 타고난 기남자는 가문의 축복 속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신하로서의 임무와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후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가>에 서술된 기남자의 생애는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기남자를 통해 부와 명예가 자손 대대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무궁하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염원도 함께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남자’의 모티프 역시 독자층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貴格의 외모에 복을 타고난 기남자는 한 평생 팔자가 無欠하고 五福이俱全한 인물이다. 여기서 오복 즉,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을 모두 누리는 삶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망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팔자가 무흠하고 오복이 구전한 기남자의 형상은 독자에게 그저 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평생 복을 누린 기남자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우리 가문에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원하고 내 아들, 내 손자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한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가문 전체의 차원에서 기남자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9) ‘양필’이란 보필하는 임무를 제대로 해내는 신하를 뜻한다.

60) ‘교목세신’은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낸 집안 출신이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신하를 뜻한다.

61) 현명한 신하로서 임금을 잘 보필하겠다는 의미는 ‘伊周’ 즉 은나라 제상 伊尹과 주나라 제상 周公의 예를 끌어온 다음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인양천거 직임이며 요순성군 맞사느니/ 도리음양 스업일다 이쥬보필 호오리라”)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가>는 남성의 이상적인 삶의 지향을 담고 있기는 하나 전형화 된 틀에 맞춰 형성된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닌 ‘나’의 목소리가 녹아 있는 생동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남자’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다가 중간에 ‘나’의 목소리를 투입시켜 ‘남자’와의 거리를 없애고 동일시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일생 서술이 주로 장면으로 포착되고 여기에 감각적 표현이 극대화되면서 생생한 현장감이 전달되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자 자신의 삶의 성찰이나 고민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자전적으로 슬회되는 여타의 작품들과는 분명 궤를 달리한다.

<남자가>의 일생 서술의 특징은 작품의 향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 독자층의 향유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화려하고 호사스런 각종 물품, 의복, 음식 등이 세세히 열거된 장면에서 감각적으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작품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서울의 세시풍속과 도시유흥을 따라가면서 남성들이 서울에서 즐겼던 멋스러운 풍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관등놀이나 선유놀이 등을 즐기는 중반부에는 관직에 나가기 전 한가롭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처사의 이미지가 포착되는데, 서울의 명승지에서 문화적 흥취를 즐기는 문식 있는 서울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서두에서 “장안의 벗님니여 이니말삼 드러보소~”라고 하여 ‘장안(서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작품이 시작된 것도 이 작품이 서울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독자들은 <남자가>를 통해 이러한 서울이야기를 전해 듣고 서울인의 여유 있는 풍류를 간접 경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남자’가 출세 지향의 관료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처사의 이미지도 함께 갖춘 존재로 형상화됨으로써 자칫 비현실적이고 허구적 인물로 치부될 우려를 완화하고 작품의 재미를 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의 ‘남자’가 ‘기남자’로서 비범한 출생 이후 봉조

하 휴퇴까지 평생 복록을 누린 ‘복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남자를 통해 부와 명예가 자손 대대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무궁하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작품 이면에서 포착된다고 할 때, 이 작품은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가문이라는 더 큰 관계망 속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평생 복을 누린 기남자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우리 가문에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 가문의 번창도 소망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남자가>는 ‘기남자’ 모티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玉屑華談>류의 가사와 함께 논의할 만하다. <옥설화담>에도 기남자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가 등장하는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인생무상 등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점에서는 <남자가>와 층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옥설화담>의 여러 이본 가운데 기남자의 일대기가 주요하게 부각된 경우도 있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⁶²⁾ 이는 후속 과제로 삼고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

62) 한국시가학회 제68차 정기학술발표회(2013.6.15)에서는 <옥설화담> 이본의 변이양상에 주목하고 작품의 유통 양상과 수용층의 세계관을 밝히고자 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가 분류한 유형 가운데 C형의 ⑨번 <옥설화담>(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희동정상국회방언』에 수록된 작품)은 ‘기남자’의 일대기가 중심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남자가>와 비교할 만하다. (김현식, 「<玉屑華談>에 대하여」, 『한국시가학회 제68차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시가학회, 2013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남자가』 (장서각본)

『고가요기초』 (국립중앙도서관본)

최대립 역해, 『신역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2008, 1~324면.

이상원·김진욱·김미령, 『주해 고가요기초』, 보고사, 2009, 1~217면.

2. 단행본

최상현, 『조선 상류 주택의 내부 공간과 가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161면.

3. 논문

구수영, 「男子歌放」, 『논문집』 제8권 제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5~27면.

김성진,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 57~74면.

김현식, 「<玉屑華談>에 대하여」, 『한국시가학회 제68차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시가학회, 2013.

박연호, 「<남자가>에 제시된 조선후기 중간계층의 삶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2008, 267~286면.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42,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218~241면.

이혜순, 「천년 승지, 서울」,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 논형, 2005, 28~46면.

정인숙, 「<만연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008, 135~169면.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67~106면.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Description of *Ginamja*'s Whole Life in <*Namjaga*>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description of *Ginamja*(奇男子)'s whole life in <*Namjaga*(男子歌)>. This work belongs to Gasa genre, and give the description of man's ideal life.

However <*Namjaga*> is not described with voice of single poetic speaker, voice of narrator 'I' and voice of main character 'man' is intermingled. So this work is not stereotyped or boring but interesting, we can read animatedly. And scene description in this work is worthy of notice. Especially the sensuous description stimulates readers' sense of sight, taste, smell.

It is possible that this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 of whole life have to do with enjoy of this work. Especially there are many points stimulating women readers. Splendid articles, colorful foods, and fancy dresses are enough to attract women readers. And seasonal customs and urban entertainment of seoul are placed in order, so it is possible that women readers can peep the life of man who lives in seoul through this work.

The main character 'man' in <*Namjaga*> is not a ordinary person but '*Ginamja*(奇男子)'. The *Ginamja* is a lucky man, and he has many blessings. He is born extraordinarily, becomes successful, and enjoys his happy old age. It is possible that many readers wish the birth of man like *Ginamja* and success of their family through that man. If so we can read this work not in a man's personal level but in a family level.

Keywords : <*Namjaga*(男子歌)>, *Ginamja*(奇男子), description of whole life, intermingling of voices, making scene, seoul, seasonal customs, urban entertainment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